

道路交通 安全問題와 政策優先課題

이상완(국제제난 및 교통의학회 아세아 지역 대표)

교통 안전문제와 정책우선과제

국제 재난 및 교통의학회 아시아 지역 대표 이 상 완

1970년대 부터 시작된 산업발달은 도시인구의 집중과 자동차 수의 증가 현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빈번한 교통사고와 사망 및 부상자의 증가는 큰 사회적 관심사로 주목받게 되었고 희생자가 점차 늘어나 80년대 후반부터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승용차의 두드러진 증가로 짧은거리든 먼거리든 승용차를 이용하는 여행 추세 때문에 차대차 사고의 증가로 인한 승차자 부상과 사망이 늘고 있어, 종래 다치기 쉬운 도로사용자(Vulnerable road users ;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등) 문제 뿐 아니라 승차자 안전문제 까지도 함께 다루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동안 정부와 행정당국은 교통안전문제 해결에 인색했으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조직의 활용이 없었고, 증가하는 사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무역량은 세계 12위권내, GNP는 10,000\$에 달하였지만 교통안전에 관한 후진국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교통사고 삼대요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 차, 환경중 특히 대책에 소홀하였다고 사료되는 인적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학적 지식을 교통안전에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고 의료인의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수립 될 수 있다.

본 연제의 목적 : 한국의 사회 경제 발전과 교통안전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교통안전 정책 우선과제 (특히 의사 또는 의료인의 참여를 요하는 혈중 알콜농도 측정 의무화법, 운전면허의 의학적 적격기준, 안전벨트 착용법의 강화, 응급의료 봉사 체계의 확립과 응급구조사의 양성, 사고자료의 과학적 수집과 분석등)를 강조하여 조명코저함.

방 법 : 지난 10년간 자동차 사고, 사상자의 증가추세를 분석하고, 사회경제 발전 지표 (GNP, 평균수명, 자동차 보유율, 도시인구 비율, 포장도로 밀도)와 교통안전 관련 데이터 (인구 만명당 사망자, 자동차 만대당 사망자, 자동차 만대당 부상자)를 제시함과 아울러 국제적 비교관찰을 하였다.

결 과 : 사회 경제적 발전지표들은 자동차 보유율을 제외하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상위개발도상국 (Group 3 developing countries ; 알젠틴, 브라질, 칠레, 멕시코, 스리남,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말레시아, 이라크) 들의 평균치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반면 교통안전 관련 특성들은 선진국들의 수치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뒤떨어지고 상위 개발도상국 데이터의 나쁜쪽에 속해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결 론 : 사회경제 발전과 교통안전 상황과의 현저한 불균형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고와 희생자의 감소를 위해 의사를 포함한 교통안전 관련 각 분야 전문인력과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요망된다. 당면한 교통안전 대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전문인들로 구성된 통합 연구기관(예 :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조직이 필요하며 이는 고위 정책 결정 당국자와 직접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